

“GM 협상 막바지... 먹튀방지 제도적 보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GM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조조정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 대주주·채권단·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그동안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를 했고, GM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우리 돈 8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GM은 기존에 대출로 있던 3조원 정도를 출자로 전환하고 추가로 약 4조원 정도를 추가 대출한다”며 지난날 말에 이뤄진 산은과 GM의 협상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10년간 소위 ‘먹튀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매각권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가져오기에 최소 10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남북경협, 차분하고 질서있게...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 지난 1년 경제 패러다임변환 노력... 가시적 효과 미흡 일자리 실망스러운 숫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아냐”

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GM의 비교우위인 R&D를 보강과 신차배정, 정부에 요구한 외투기업 지정 등을 패키지로 하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고,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 영업하면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차분하고 질서있는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은 국민이 경제협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갑갑이 멀기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 북한과의 경협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빨리 결론나서 준비한 것들이 바람직하게 전개됐으면 한다. 그러나 상대가 있고 국제사회가 있기에 지저있고 차분히 대응하고, 준비는 내부적으로 품

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자개발은행의 개발금융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선례가 있기에 같이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운용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정도 발동이 걸리지 않았나 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3% 성장률에 복귀하고,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또한 한중통화스와프, 북핵, 통상마찰, 부동산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관리했고, 혁신 성장 쪽에서 1분기 중 기업 창업 수와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년간 의미있는 진전을 했지만 아직 더 가야한다”면서 “일자리 등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체감효과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 “2~3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다”면서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에 길게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코 세대 등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야한다”며 “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추경으로, 3조9000억원 추경을 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알찬 사업을 실행했다. 아직 국회 심의를 못 가서 안타까운데 빨리 진행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NH협은행 한옥마을지점
가정의 달 고객감사 이벤트

NH협은행 전주한옥마을지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거대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출, 예금, 펀드, 방카, 올원뱅크 등 농협은행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 중에서 3가지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지역 농산물인 건강 잡곡을 증정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건강도 지키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주한옥마을지점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과 자영업자들이 금융 업무를 처리하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 인근에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며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동취재반



‘9988NH건강보험’ 출시
하루만에 1300건 돌파

NH협생명 전북총국은 ‘9988NH건강보험’이 출시 하루만에 전국 판매 건수 1만건, 전북 판매 건수 1300건(전국 대비 점유율 12.4%)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농협생명 출범 이후 최단 기간 최대 판매 기록이다.

이는 고객이 각자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할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주요했다고 전북총국은 분석했다.

또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점도 인기몰이의 요인으로 됐다.

이 상품은 40~80세의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객은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 ‘간편 심사형’으로, 15~70세의 건강한 고객은 ‘일반 심사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동취재반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어려워져

금감원, 점검 기준 현실화... 은행권과 7월까지 개선안 마련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재하는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시 용도 외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점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후 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를 개정한다. 오는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달에는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시행된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기준’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이 대출목적 외 용도로 유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신청 시 대출용도를 확인하고 대출취급 시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한 뒤,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기업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용도로 쓰

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해 쓰는 때 등이다.

사후점검 방법은 우선 대출 취급일 부터 3개월 내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요구하면, 대출취급일부터 6개월 내 업체를 방문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약 자금용도의 유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신규여신 취급을 제한한다. 1차 적발시 1년 동안, 2차 적발시 5년간 제한한다.

문제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 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용도의 유용됐는지 점검하는 선정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출시... 내구성·상품성 강화

현대차, 이달 중 판매 돌입... 2400cc 엔진급 허용 토크 확보 6단 자동변속기 적용

현대자동차가 내구성과 상품성을 강화한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를 출시, 이달 중 판매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는 강화된 변속기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 보다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아울러 2400cc 엔진급 허용 토크를 확보한 신규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 장시간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운행하는 택시 운전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는 브

레이크 시스템을 기존 전륜 15인치에서 16인치로, 후륜 14인치에서 15인치로 업그레이드해 제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브레이크 내구성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행중 후방영상 디스플레이(DRM) 기능을 적용해 주행 중 후방 안전 시야 확보를 강화했으며 기존에 함께 선택해야만 했던 운전석 통풍·열선시트와 전동조절시트를 개별 사양으로 분리, 필요한 사양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현대차 관계자는 “택시 시장 고객 니즈를 분석한 결과 내구성과 제동 성능, 운전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며 “핵심 파워트레인 내구성과 제동 성능, 실속형 사양 구성을 강화한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로 국내 택시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판매에 돌입하게 되는 ‘2018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의 가격은 ▲스타일(M·T) 1680만원 ▲스타일(A·T) 1855만원 ▲모던 2080만원 ▲프리미엄 2288만원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